

## 더 이상은 안된다

노조집행부 비대위 힘 실어주기 위해 주주설득작업 나서기로  
정위원장 “참언론의 길 만드는 기회, 시간이 많지 않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천일보 노조집행부는 오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인천일보 개혁의 첫 걸음인 감자가 이뤄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 주총전 이사진 설득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조집행부는 우선 현재까지 비대위 체제로 진행되어온 이사진 설득작업에 직접 나서서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다각적인 방법으로 증감자를 앞당기는 작업에 적극 뛰어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을 비롯, 노조집행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 주주 총회전까지 각 이사진들에게 ‘대주주들 주식의 80% 감자’를 비롯한 차등 감자를 요구하고 ‘대 주주 주식 권리 위임 공증 반납 불허’ 등 노조의 입장을 명백히 밝힐 전망이다.

이는 2대 대주주들의 주식을 50%만을 감자했을 경우 다시금 경영권을 재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노조집행부는 이사진 설득 작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또다시 철야 투쟁 등 강경투쟁으로 선회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아울러 6개월이 넘도록 감자를 이루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회사를 끌어오는 비대위를 견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노조집행부는 그러나 14일 감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비대위의 일정에 맞춰 증자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건전한 자본의 영입과 함께 특정회사나 개인이 대주주로 등장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시민주 공모 등 언론개혁 작업을 완수하기까지 할 일이 많다고 판단, 개혁적 지역언론 만들기를 위해 개혁프로그램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찬홍 노조위원장은 “지금까지 비대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자제하고 비대위의 결정을 따라왔다”며 “그러나 더 이상 증감자 문제가 지지부진할 경우 참언론의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노조가 나서서 주주들을 설득하며 비대위의 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때론 독자적인 행동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바른 언론, 참언론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고 투쟁에 적극 동참해온 조합원들과 언론노조 중앙본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동지들의 염원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어져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쓰소리  
다소리

## 비대위에 바란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아마도 우리 회사 상황을 두고 나온 말인듯 싶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3월 말일 주총의 파행, 지난달 19일 이사회 상황의 상황이 꼭 그랬다. 거두절미하고 오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또 어떤 ‘설마’가 인천일보 직원들을 경악시킬 지 차라리

두려운 심정이다. 그러나 이제 설마를 두려워하기전에 노동조합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회사를 경영하며, 증감자에 애써오고 있지만 비대위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걸림돌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위원장을 비대위에 참여시키면서 자체 활동을 자제하고 적극 비대위에 협력해 왔다. 또 앞으로도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인천일보의 지금 상황은 비상상황이고 노조이건 비대위건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의 입에서 “이젠 노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자꾸만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한 편에선 “노조의 대표인 위원장이 비대위 위원인데 그제 노조입장하고 마찬가지로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노조에선 최근들어 자주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집행부는 임시주총이 있는 오는 14일까지는 노조가 주축이 된 활동을 자제할 생각이다. 그 이후는 비대위원장이 전체직원에서 언급했듯이 비대위를 해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래저래 노조가 다시금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비대위에 몇 가지 제안을 건의한다. 크게 ‘차등 증감자’, ‘구조조정’ ‘개혁인사’와 관련한 담론이다.

우선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강철대오 투쟁으로 쟁취한 51%에 이르는 주식권한 위임을 50%만 감자하고, 그것을 전 사주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자는 일부 주주들의 의견을 단호히 거부하길 바란다. 이유는 50%만을 감자할 경우 여전히 막강한 소유권한을 가진 전 대주주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금 대주주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애초 50% 감자를 동의했다. 하지만 차등 감자로 선회하도록 자극한 것이 전 대주주들이다. 50% 감자를 하는 주주들은 다분히 감상적인 발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 주주들의 말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연 그 주주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책임진다면 과연 어떻게 진다는 말인가. 처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생존권인 이 일터를 그렇듯 단순하고 감상적인 논리도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구조조정을 하라는 일부 주주의 의견에 대해선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렇듯 신문사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분’들이 신문사 주주라고 행세했으니 인천일보가 발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처럼 제품이나 기계가 ‘주’가 아닌 인력이 ‘주’가 되서 돌아가는 조직이다. 이름이 자주 바뀌는 지방의 몇몇 일간지처럼 적은 인력으로도 신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번 쓰지 못하고 버리는 불량품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충대충 매꾸는 신문이 아닌 정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정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신문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 신문’이다. 우리 인적자원이 얼마나 훌륭한 지는 이미 전국의 신문 방송을 통틀어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로 선정하는 기자상을 최근 잇따라 두 차례 연속 수상함으로써 여실히 입증됐다. 이젠 회사가 일할 의욕이 넘치는 직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할 때이다. 신문사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주주로 있을 경우 그 신문의 미래는 먹장구름만이 가득할 뿐이다. 오죽 답답하면 신문을 모르는 이사들을 선별해 우리가 구조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지 상황을 지켜보자.

개혁인사부문에 대해 노조는 인사의 원칙이 ‘인적 쇄신’ ‘적재적소의 배치’와 ‘팀 워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일보는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훨씬 멀다. 쉬었다 가면 이미 ‘희망찬 미래’로 가는 비행기를 놓칠 게 뻔하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숨이 막히도록 고생하며 달려온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오는 14일 임시주총에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모두가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맞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투쟁은, 그리고 앞으로는...

## ‘용암같은 투쟁의지’를 ‘분출하는 시민의 희망’으로

인천일보 제 11대 노동조합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중 우리 인천일보사는 말 그대로 급변하는 안팎의 변화를 온 몸으로 떠안아 왔고, 그 중심에는 노동조합이 있었다. 그리고, 현 시점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행적을 돌아보고 성과를 평가하며, 또 아직 남아 있는 과제를 돌아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아야 할 때인 듯싶다. 지난 해 임단협 체결을 시작으로 신 전 사장과 그 하수인들을 비롯한 구 경영진의 퇴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단체협상 체결, 증·감자를 결정할 주총장에서 발생한 구 경영진의 만행, 결사투쟁의 각오로 임한 한국공영 앞 집회 및 19일간의 철야농성, 대주주들의 항복(?), 그리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어 온 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들만을 열거해도 실로 엄청난 일들이다. 바깥의 변화는 어떠한가? 조·중·동 거대 메이저 신문사들의 돈놓고 돈먹기식 시장잡식과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한 지역신문들간 과당 경쟁으로 허덕이던 신문시장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건강하고 개혁적인 지역의 언론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수구·보수신문들의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민의를 지면과 전파에 담아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및 이해의 조정이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법 제정 과정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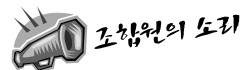
이처럼 안팎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선 비전을 가진 회사이자 자랑스런 언론사에 우리들의 젊은 날과 희망을 투자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또한 바로서는 지역언론을 회고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론 종사자들이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규정지어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투쟁은 크게 두 갈래로 전개돼 왔다. 그 첫 번째는 소유구조 개편 작업이다. 언론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영능력도 의문스러운 대주주가 직접 회사의 대표로 경영을 했던 10여년 간의 폐해는 자본잡식이라는 작금의 우리 현실이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유구조 개편작업에 집중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구 경영진의 복귀를 차단하는 동시에 건전한 자본을 유지하고 건강한 언론 마인드와 경영능력을 겸비한 신진 인사의 영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내부개혁의 완성작업이다. 구 경영진 체제 하에서 우리 인천일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원칙없는 지면 편성으로 신문의 질이 추락한 이유는 단순히 최고 결정권자 한 사람만의 의지로만은 치유할 수 없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또 외부의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럴 듯하고 떠들썩하게 포장돼 추진됐던 각종 사업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유야무야되고, 지역사회에서 신망도 잃고 실패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던 점들 역시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및 운영을 합리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원칙있는 취재와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의 개혁작업 역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같은 소유구조 개편과 내부혁신을 동시에 무난히 달성하느냐의 여부에 우리들의 삶과 인천일보사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투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또 성공하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싸움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인천일보 16년의 저력과 함께 나와 우리들의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용암처럼 뜨겁게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슬기롭게 앞으로의 난관을 극복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조합원들의 일치단결일 것이다. 자, 이제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자는 우리들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가열찬 투쟁을 기쁘게 수행해가자. 인천일보 노동조합 파이팅!



## 지친 조합원 새로운 목표로 뭉칠 때

연일 투쟁국 중심으로 이어진 릴레이 철야 투쟁속에서 인천일보 전직원이 '우리' 라는 틀속에 있다는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노동가요'를 연신 따라 부르며, 인천일보 개혁 투쟁을 외치는 목소리는 분명 하나의 목소리였다.

특히 하루도 빠짐없이 전 노동 조합원을 이끈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보이지 않게 뒤 처리를 도맡아 담당 조합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감동이었다.

이런 집행부와 노조원들의 모습이 근무 후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철야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했다.

인천일보 노동조합의 19일간의 철야투쟁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서로 서로를 좀 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전 경영진과의 투쟁속에 피어난 또 다른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신화수, 장재춘 사장의 주식 권리를 비대위에서 위임을 받아 놓고도 이사회에 제동으로 감자결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사회는 '명분'을 내세워 위임에 대한 공증을 두 대주주에게 돌려주고 주총에 참석시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

또 지지부진하고 지리한 이사회 설득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밤샘 철야에서 얻어진 성과물이 협상의 대상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노조원들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철야 투쟁을 마친이후 최근에는 투쟁국별로 1~2시간씩 간담회를 진행중이지만 항상 나왔던 말만 되풀이하는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언론개혁, 내부개혁과 함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최저 임금을 벗어나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땀땀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다.



## '화합'의 마음 늦춰서는 안된다

연일 투쟁속에 노조원들은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비대위와 노조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원 모두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감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까지 감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가 바라는 80% 차등 감자에 대한 논의가 이사회에 설득작업으로 지지부진해 지고 있다.

노조와 비대위는 원칙적인 감자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또 계획되고 체계적인 감자 방향과 향후 일정을 세세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노조원들의 화합이 자칫 깨질 수도 있기때문이다. 현재 노조에 필요한 것은 화합속의 다양한 의견이다. 대립의 각을 세우는 의견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논의할 수 있는 화합이다.

또한 앞으로 노조는 비대위의 내부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건전한 견제를 유지해야 된다. 현재 비대위는 내부개혁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노조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대위의 정확한 입장, 노조의 견제, 노조원의 화합만이 인천일보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정확한 방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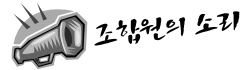
19일간의 철야 투쟁 과정에서 분명 전 직원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근기자로 구성된 투쟁 2, 3국 조합원은 향후 일정, 비대위의 역할론, 노조 방향을 두고 설왕설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그 모습은 신화수, 장재춘 사장의 주식 권리 위임 공증의 성과를 이뤄낸 이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결된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투쟁국 간담회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시간의 경과성에 있다. 비대위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 또 노조 투쟁의 열기도 점점 식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정확한 방향성이 어느 것인지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도 그 앞을 모르고 있기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이사진들이 요구한 대주주들의 주식권리에 대한 공증 반납을 두고 조합원과 비대위 간에 미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그저 답답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철야 투쟁 간에는 서로 같은 투쟁의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협상의 모습으로 변해감에 따라 투쟁국 조합원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투쟁국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과 의미 없는 말이 여기저기서 오고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혼란 속에서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다. 이제 슬슬 지쳐가는 노조원들을 비대위와 노조에서 잡아줄 때다.



## 이제 또다른 투쟁을 시작하자

인천일보 정기주총이 파행으로 끝난 뒤 우리는 너무나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투쟁의 목표를 정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국공영 앞에서 비를 맞으며 5시간동안 그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대주주들의 잇단 항복도 받아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비율은 확실치 않지만 감자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전까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전개된 것과는 달리 우리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임해야 하는 더욱 힘든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회사를 개혁적으로 바꾸고 지역언론지원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뼈를 깎는 투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대우도 확연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사적으로 자발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개혁적인 과제들은 협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다 많은 독자들을 확보해야 하며, 이전보다 볼거리가 많은 지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우기 지역언론지원법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모을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씨앗이 되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도와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수 있도록 개개인이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고를 갖고 모든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인천을 말해야 한다. 정주의식이 약한 인천시민들이 인천일보를 통해 인천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진정한 시민의 신문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인천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시민이 찾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는 자신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 아직은 어리기만 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답시고 걸어온 십년 세월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대한 희망과 절/대/적/인 열망이 없다면 인간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절제된 기대감을 갖는 사람만이 끔찍한 해악을 자신과 타인에게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머니와 머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이 세상에 익숙해지는 새로운 시간들이 얼마간 걸리겠지만, 새로운 손가락으로 세상을 부여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새롭게 조직된 회사가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얻어지는 행복은 없고 공허하게 미래에 기대는 행복이라는 구호만이 남게 될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진실없이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허나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저를 봅니다. 세상속의 조급증에, 성과에, 세속적인 성취나 권력에 여전히 연연해 하는 저를 봅니다. 아직은 어리기만 합니다.

## 인천일보, 이달의 기자상 잇따라 2회 수상



**‘바닷모래...’  
‘수도권매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빛나는  
‘고군분투’**

인천일보사가 2회 연속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62회 사회부 박정환, 이주영 기자의 ‘바닷모래 해법, 정부가 나서라’와 163회 사진부 안영우 차장, 사회부 박정환 이은경 노형래 기자의 ‘수도권매립지 10년, 비극은 시작됐다’가 그 영예의 수상작들.

‘수도권매립지 10년, 비극은 시작됐다’ 수상작은 수도권 매립지가 생긴 이후 10여년 동안 침출 처리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인천 앞 바다로 흘러내린 침출 처리수로 인한 어장파괴 현장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과거 침출 처리수에 관한 관리 실태를 표면위로 끌어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시민단체, 피해 어민 대책위, 환경단체로 구성된 실태 조사단을 발족시키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앞서 수상한 ‘바닷모래 해법, 정부가 나서라’ 수상작은 20여년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천연해수욕장 모래유실로 인한 관광자원 파괴 실태를 고발했다.

또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된 현행법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촉구를 기사화 해 국무조정실 주제로 대책반을 구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회사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사진부 안영부 차장, 사회부 박정환, 이은경, 노형래, 이주영 기자에게 각각 3돈짜리 황금열쇠를 수여, 노고를 치하했다.

앞서 인천일보 노조 민실위는 이들 기사들을 2월, 3월의 ‘인천일보 노조 민실위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으로 정한 바 있다.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노형래 기자는 “선배들의 기획력과 후배들의 취재력이 뭉친 팀워크의 힘으로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살아 꿈틀되는 인천일보 편집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인천일보 노조 철야 투쟁을 한 눈에...’

지난 3월말일부터 철야투쟁을 마치던 4월까지 침이 마르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인천일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의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참언론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3월 31일 열린 주주총회



주 총장 밖에서의 노조원



노조원에게 밀려나가는...



단결투쟁



1층 로비 전체직원회의



노조 철야투쟁 16일째

결사투쟁 결의하자!

